

불화박물관 건립을 위해

‘영월연세포럼’ 지자체 최대 규모, 불교회화 등 12개 주제 다뤄

국내 유일의 박물관 특구인 영월에서 박물관 국제포럼인 ‘영월연세포럼’이 5월 23~26일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최대 규모로 20개국의 130여 석학들을 한 자리에 초대해 박물관과 한국학 등을 심도 있게 다뤄 박물관계와 문화계 등에 주목을 받았다.

현재까지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박물관이, 시대가 변화에 따라 어떻게 문화와 교육공간으로 지역 문화 속에서 동력될 것인지에 대해 새롭게 학술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이었다.

이번 포럼은 세계 박물관학계, 디자인학계 및 해외 한국학계에서 신뢰할 만한 연구 경력과 실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초청돼 △세계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지향 방향 △전통과 평화 그리고 뮤지엄 △한국학의 문화적 전환: 최근 동향에 대한 고찰과 반성 △중국의 한국학과 한국학 교육 △한국 전통 미술의 새로운 시각 △세계 환경사 연구의 성과 검토와 국내 환경사 연구 증진 △박물관도시와 디자인 △현대 유럽인의 삶과 중세 문화 보존, 활용, 교육 △유럽의 한국학 △세계 한국학 교육의 실태와 발전 방향 △영월디자인

△세계 에코뮤지엄 현황과 영월박물관도시의 과제 등 12개의 색션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5분과에서 열린 ‘한국 전통 미술의 새로운 시각’에서는 최근 한국 미술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조선 전기 불화에 대해 다뤘다.

최근 조선 전기 불화에 대한 여러 작품들이 발견되고, 새로운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불화에 관한 연구자들을 모아 조선 전기 불화의 도상과 판본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조선 전기의 불화에 대해 고려 전기 불화와 조선 후기 불화를 비교할 뿐 아니라, 중국, 일본의 불화도 함께 비교함으로써 조선 전기의 불화의 계승성과 특징을 파악했다.

워싱턴대 큐레이터인 창정은 ‘보스턴 파인 아트 박물관 소재 모카나 회의의 고려 불화의 사례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보스턴 파인 아트 박물관의 컬렉션에는 19세기 말 윌리엄 스텐턴 스티븐스(William Sturgis Bigelow)가 일본에서 구입한 작품이 있다. 작품은 오랫동안 중국 작품으로 추정돼 오다, 최근에

들어 고려 말(912~1392)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작품은 비로사나불의 신공의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중심 신령이 비로사나의 양 옆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둘러싸 손으로 독특한 무드와 동작을 취하고 연화좌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이 다. 창정은 “보스턴에 있는 고려 불화는 원나라(1271~1368) 말경 미술가들은 전통적인 화법을 전수했던가 원나라의 새로운 불상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창정은 이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불교예술 전이에 대해 분석해 발표했다.

런던대 박영숙 교수는 ‘10~11세기 고려(918~1392)와 요(907~1125) 관계-불교 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영숙 교수는 “고려는 송과 요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에는 유향책을 쓰고, 상대의 침략 때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능숙한 대외 정책을 운용했다”며 “역대 국가 간의 끊임없는 정치적 갈등과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사업 및 외교 활동은 지속됐으며 아랍, 송, 요 및 일본의 무역상들이 고려의 함과 수도 개경을 왕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들이 가지고

온 희귀하고 신기한 물품들은 고려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했고, 고려의 문화적 취향을 한껏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대 박은경 교수는 ‘조선 15~16세기 불화의 현황과 특색’에 대해 발표했다. 박은경 교수는 “조선 시대 불화는 수전점에 이르며, 대부분 17세기 이후에 해당한다. 15~16세기 불화는 현재 120여 건(140여 점)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사찰에 남아있는 15~16세기 불화는 강진 무위사, 안동 봉정사, 장원 관동사 벽화 등과 같은 극소수 사례만 남아있고, 그 외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사립 미술관, 대학 박물관에 걸개그림 불화가 일부 소장돼 있다”고 밝혔다.

홍익대 강소연 교수는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수월의 도상학적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현재 영월군에는 20여 개의 박물관이 설립됐으며, 영월 하동면 예미리에는 전사실, 불화 체험실, 영상실을 갖춘 ‘만불불화 박물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이 불화박물관 건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은정 기자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 ⑥ 인물사진의 거장 카쉬 사진전

진실을 찾아내는 비결은 ‘공부’

하나, 둘, 셋! 찰칵. 우리의 사진 찍는 방법이다. 유행에 따라 김치 대신 치즈를 외치기도 하고 한때는 위스키를 외치기도 했었다.

단체사진은 세월이 무상할 만큼 참으로 낡은 꼴이다. 심지어 경주 불국사 계단 앞에서 줄을 맞춰 찍은 나의 수학여행 사진은 부모님의 수학여행사진과 장소와 구도까지 똑같다.

모두가 이곳에 왔다는 ‘증거’를 남기는 순간이니 ‘김치’를 외쳐도 자꾸만 익숙해진다.

그곳에 선 이는 웃어야 된다는 강박, 그곳에 다녀갔다는 증거물

카쉬는 사진 찍기를 거부하며 은둔하는 유명 인사들조차 ‘그’라면 촬영을 허락 했다는 캐나다 출신의 사진작가이다. 그의 모델이었던 수줍음이 많은 소설가 헤밍웨이도 거만한 정치인 처칠도 미모의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도 진짜 ‘나 다운 모습’이라며 자신의 사진을 좋아했다고 한다.

카쉬가 찍은 사진 속 인물은 경이로워 과장돼 있지 않다. 편안하고 자연스럽다. 역시 미소를 짓는 이도 없다. 답답한 표정이 오히려 모델들을 생기 있게 보이게 한다.

그와 작업한 명사로는 오드리

허 마사니지 조사하고 직접 마셔 봤다. 카쉬와 작업한 모델 중 가장 수줍음을 많이 댔다는 헤밍웨이는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카쉬에게 “마실 것 좀 드릴까요?” 하고 권했고 이때 카쉬는 망설임 없이 헤밍웨이가 가장 좋아한다는 술 “다이어리 한 잔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답했다. 헤밍웨이는 깜짝 놀라 “그렇게 독한 술을 낮부터 드시겠어요?”라고 말하자 카쉬는 실수를 눈치 채고 “내가 어제 저녁에 당신에 대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카쉬에게 감동받은 헤밍웨이는 마음의 문을 열고 편안



사카와 카쉬 슈타이처 엘리자베스 테일러 오드리 헵번 제롬인 케네디 처칠 헤밍웨이

을 남기겠다는 의지가 함쳐져 입가는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못하는 모나리자 미소를 짓게 된다.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표정의 인물사진, 어떻게 하면 찍을 수 있을까? 인물사진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사진작가 유세프 카쉬(Yousef Karsh, 1908~2002)의 사진전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으로 사진에 대한 관심이 저변으로 확대된 요즘 인물 사진의 거장 ‘카쉬 전’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다. 카쉬 사진전은 2년 전 이미 10만 관람객이 다녀간 유명한 전시다. 율해는 디지털 프린팅이 아닌 카쉬가 직접 만든 원본 사진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그의 전시가 열린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는 평일 오전부터 북적이는 사람들로 그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하게 촬영에 임할 수 있었다. 유난히 수줍음 많던 헤밍웨이의 스타일 케네디 등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20세기 스타들이다.

카쉬의 사진에는 인간 내면의 진실이 담겨있다고 평론가들은 말한다. 그의 장점인 ‘진실’ 된 모습을 포착해내는 힘은 모델에 대한 철저한 ‘공부’에서 온다. 진실은 거짓을 벗기려고 애쓰기보다 열정을 갖고 ‘탐구’ 하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카쉬의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카쉬가 마음공부를 하는 이치도 이와 같다. 마음공부도 내면의 진실에 도달하기위한 공부이다. 하얀거에 들어가는 스님들처럼 치열하게 마음공부를 한다면 절로 진실의 세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카쉬는 헤밍웨이를 촬영에 앞서 그의 집주변의 바에 들렀다. 그가 자주 오는지, 무슨 술을 즐

제2회 돌샘불화 작품전 개최

6월 4일까지, 보현보살탱 시연도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석정 스님의 공개시연과 제2회 돌샘불화 작품전이 6월 4일까지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석정 스님이 보현보살탱을 직접 시연 공개하며, 하경진의 석도니맹, 송천 스님의 어람관음묘사도, 조해종의 산신탱, 오기웅의 나한도, 이승규의 달마탱, 박도훈의 보살상이 함께 출품된다.

또한 석정불교미술전수회의 회원 19명의 40여 점을 비롯해, 후불탱화, 미타탱화, 석씨원류도, 약사여래탱화, 수월관음도, 42수 관음탱화, 신중탱화, 용왕탱화, 조왕탱화 등 50여 점이 전시된다.

조해종씨는 “불화는 불교미술의 근원을 이루는 예술작품인 동시에 선인들의 사상과 세계관이 담긴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로, 이번 전시는 일반인들에게 불교미술의 친숙함과 예술성을 알리기 위해 됐다”고 말했다.

근래에 조성되는 작품들은 현대적 기법과 재료 활용이 일 반화돼 전통 불화의 전승 맥락을 잃어가는 실정이다. 이번 전시는 현대적 기법의 불화 조성방식을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한국불화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자리이다. (051)630-5200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 18~24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하루 한 가지 마음공부법	우학	조화로운살
2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배우는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3	스님은 사춘기	명진	이슬
4	기도	법륜	정토
5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전영우	운주사
6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7	마음하는 아우야	박성직	녹아원
8	한 권으로 읽는 법화경	보경	민족사
9	무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비시교다 레베라 아이비박스	
10	이항봉 스님의 일체유심조	이항봉	우인사

※ 불서출판 우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우주사 (02) 3672-7181

(주)현대에너지텍 2011년 최신형

농협용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 1명 ~ 20명까지

본사공정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여름방학 가족과 떠나는 **성지순례**

- 8월18일 (화정) - 미얀마정부 초청 수계대법회 행사
양근 | 바간 | 만달레이 | 해호 7일 (요금문의)
- 7월27일 (화정)
양근 | 바간 | 만달레이 | 해호 6일 1,790,000원
- 8월24일 (화정)
양근 | 바간 | 만달레이 | 해호 7일 1,840,000원

* 모든 경비 포함된 상품입니다.

- ① 티벳과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9일
- ①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5일
- ①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주주 관음원 불경 6일
- ① 대만 정통 불교성지순례 4일 (불광사 | 중대선사 | 자행사 | 아류)
- ① 방콕 | 파타야 5일, 정사 | 장가계 5일, 백두산 5일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한글세대·영어세대를 위한 유식학 출간!’

Mind-Only Science

오직 마음일 뿐인 **유식의 세계**

지은이 고 목

신간

연락처
도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유식사상연구회 T.055-353-6142

신국판 300쪽 W12,000

www.mirrao.com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불조정맥 중,영,한 3개국어판! | 절찬 판매중
* 화 두 영,중,한 3개국어판! |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